



강운태 광주시장과 기아자동차(차) 서영종 대표이사가 15일 광주시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야구장 건립을 위한 광주시와 기아자동차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하 3층, 지상 3층 2만5천~3만석 규모 2013년 완공

광주 새야구장 친환경 개방형으로

광주시-기아차 300억 투자 협약

광주 무등경기장 종합운동장이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친환경 개방형 야구장으로 거듭난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기아자동차(차) 서영종 대표이사는 15일 오전 광주시장 소회의실에서 '광주야구장 건립을 위한 투자 및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최장 25년내 범위에서 운영권과 명칭사용권 등의 권리를 갖고 야구장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운영권과 관련된 사용기간과 시설 범위, 관리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가치 평가를 거쳐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야구장 건립비용은 정부의 체육진흥투표권(토도) 수익금 300억원 이상, 기아자동차의 300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100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다.

신축 야구장은 무등경기장 내 종합

운동장을 증·개축해 2만5000~3만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으로 지어진다. 내년 5월 종합운동장 철거와 함께 실시계획에 들어가 201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2014년 시즌에는 새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과정에서 무등경기장 종합운동장이 광주 최초의 전문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화대를 중심으로 관람석 일부를 보존하고, 보존된 내부는 역사·자료관과 야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증·개축될 야구장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선수연습관련시설, 수익시설, 관람석, 지하 2층엔 주차장, 운영·관리실, 선수실, 지하 3층엔 주차장, 기계·전기실, 창고 등이 들어선다. 교통 편의를 위해 정문 앞 도로를 가까운 곳으로 우회시키고, 주차장은 경기장 내에 1300여대, 외부에 500~10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게 된다. 기존 무등야구장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프로야구 경기를 위해 당



새 야구장 조감도.

분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새 야구장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Comfortable Park) ▲환경과 IT가 접목된 친환경 공간(Green park)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문화공간(Culture park)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공간(Civic park)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건설된다.

이를 위해 일본 히로시마 야구장과 미국 뉴욕 양키즈 야구장 등 선진 야구장을 벤치마킹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첨단시설이 결합된 야구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별관 보존방식 다시 회오리속으로

회고 2010

대책위 입장 철회 2년 노력 물거품

3 끝모를 대립·갈등

'광주공항 이전' 시-도 입장차 여전히

2010년 민선 5기의 출범과 동시에 광주·전남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동혁신도시와 공동산업단지 조성 등 '한 뿔'과 같은 보조를 취했던 광주·전남은 광주·전남에 광주·전남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에 대한 정부 지원 뒤 국내선 이전을, 전남도는 애초 약속대로 국내선 이전을 통해 무안공항의 거점화를 각각 강조했다. 특히 여수엑스포, F1대회 등 국제이벤트와 한중산업단지 등 서남권 프로젝트 추진에 나서는 전남도로서는 무안공항의 조기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광주시의 국내선 이전 반대는 전남도는 서운함을 비공식적으로 드러내며 갈등의 골을 깊여

왔다. 결국 지난 6일 '호남 광역경제권 제3차 회의'에서 만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올해는 유난히 '지역 내 갈등', '지역 간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 '갈등'이 부각된 한 해였다.

'지역 내 갈등'으로는 2년 넘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역국회위원, 광주시장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 진보단체들이 중심이 된 시도민대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중심도시추진단이 부분 보존 방안에 합의할 때만 해도 이 문제는 조기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추진단이 구체적인 보존안을 내놓자 시도민대책위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고, 이 수정안에 대해 추진단과 설계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문제가 꼬여갔다. 결국 시도민대책위가 수정안을 철회하고 애초의 '원형보존'을 주장하면서 2년 여 동안 지역 각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옛 도청별관 문제에 대해 시도민대책위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어 대표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부립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였으

며, 이 과정에서 '2할 자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실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갈등은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지방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지역 간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정·조율의 기술 ▲양보의 미덕 ▲화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갈등은 상호 원칙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의 경우 갈등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상시협의체만을 만들어 논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역 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특 1급호텔' 시대



순천 호텔에코그라드

순천 호텔에코그라드 개관...모두 4곳

박람회 등 국제행사 숙박난 해소 기대

광주·전남지역에 특급호텔 건립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겪었던 숙박난이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코그라드개관은 15일 순천시 조례동에 호텔에코그라드 개관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특 1급 호텔로 운영되는 이 호텔은 호텔 전체 외벽을 통유리로 마감한 지하 3층, 지상 18층(연면적 2만2720㎡) 규모로, 스위트 룸 7실을 포함, 다양한 인테리어로 꾸민 객실 104실을 갖췄다.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피트니스클럽·수영장·골프장·사우나·영화감상실 등을 비롯해 인근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갖췄다.

호텔 측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 등 지역의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숙박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홀리데이인 광주'도 세계적인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의 브랜드의 특 1급 호텔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 프레지던트 스위트와 한실 스위트 등 12개 특실을 포함해 총 205개의 초현대식 객실을 갖췄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리미디플라자,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영암 호텔현대,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등 4개의 특 1급 호텔이 들어서 한 단계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이외에도 특 1급 호텔 신축공사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대명레저개발이 지난 7월 282실 규모의 특 1급 호텔 건립에 들어갔고 ㈜일상해양산업도 141실 규모의 지상 17층짜리 특 1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경도 해양관광단지 460실 규모의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전남에서만 10개 안팎의 특급호텔 건립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난 10월 열린 F1 대회에서 '러브호텔' 논란이 일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전례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 올해부터 7년간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3 순천정원박람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라며 "외국 관광객들이 만족할만한 다양한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홀리데이인 광주



광주 리미디플라자



영암 호텔현대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겨울을 일본에서~~

- ★실속 북큐슈 온천 (뱃북죽탕체험) 특가
4일 ₩ 429,000 출발일: 1/30
- ★구장산 스키유 마을 전통료칸 숙박 (주말이용)
4일 ₩ 569,000 출발일: 1/30
-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오사카, 와카야마, 쿠시모토, 미나베)
4일 ₩ 1,090,000 출발일: 1/24



무안-광

1월 한달만. 무안에서 떠나는 광!!

- ★P.I.C. GOLD
OCEANA <슈페리아> ₩ 1,399,000~
ROYAL TOWER <더럭스> ₩ 1,499,000~
- ★광 레오파레스 골프 54H ₩ 1,499,000
- ★광 고품격 골프 36H (NIKKO or HILTON HOTEL)
출발일: 1/6, 10, 14, 18, 22, 26 ₩ 1,499,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중식(골프2일, 3일)



제주도

- ★목포에서 출발하는 퀴메리호 ₩ 169,000 출발날짜: 12/30(확정)
포함사항: 광주출발-불포함사항: 기사&가이드팁
- ★장흥에서 오렌지호로 떠나는 제주도 ₩ 179,000
불포함사항: 광주-장흥, 기사&가이드팁
- ★항공으로 가는 제주도 ₩ 299,000
불포함사항: 기사&가이드팁



무안-마카오

마카오 전세기 (12/23~ 2/3)

- ★마카오, 홍콩 2박4일 ₩ 899,000~
- ★마카오, 홍콩, 심천 2박4일 실속 ₩ 899,000~
4박6일 실속 ₩ 94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쪽번호: 제주도 2003-1호

• 공동주인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권, 작곡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흥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 여객시 계약서(서비스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